

최
해
리

Choi Hae-ri



제발을 위한 목록
List for Tiba
2012

Replica Ceramics, Mixed Media

This project, titled “It’s Gonna Rain,” begins with a story that a stranded ark containing valuable artwork is found by an imaginary person. In the first part of the exhibition, traditional oriental paintings are on display while white and blue porcelain is exhibited in the second part. These spaces were in the form of a pseudo-museum and collection by an imaginary person. The Composed of copied replicas discovered in an imaginary ark, the museum and collection were associated with a tsunami in 2011; it connects with the concept of the place - an Ark.

-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명명된 이 프로젝트는 미술품을 싣고 가다 좌초되었던 방주가 발견되었다는 가상의 스토리에서 시작한다. 1부에서는 가상인물이 수집한 전통 동양화들이 전시되며, 2부에서는 박물관이나 개인소장으로 기록된 청화백자 도자기들이 전시된다.

이 공간들은 유사박물관과 가상인물의 컬렉션의 형태로 연출되었다. 가상의 방주에서 발견된 필사적으로 모사된 복제품들로 이루어진 박물관과 컬렉션은 Tsunami (2011.3.11)와 관계되며 방주라는 장소의 개념과 맞물리게 된다.



It's Gonna Rain

Installation view at 16bungee GALLERY HYUNDAI, Seoul, Korea
2012. 11.30 ~ 12.30











Part 1 and Part 2 presents combined stories of artwork replicas from a fictional collector's collection in the fictional museum. These stories reenact two-dimensional datas, which only existed in the form of documents and the almost fixed and unequivocal recording, i.e. history into three-dimensional space.

The figure who owns these replicas in the fictional ark employs sophistry on actual history, produces Tiba in the form of painting while closing part 1; and in order to produce Tiba mixed with poems of ancient Chinese figures or even modern pop song, the owner privatizes porcelains or paintings owned by the national museums or private owners by physically indicating their names.

Part 1 hosts replicas of actual and relevant works of the 18th Century Korean painter, Sim Sa-Jeong, based on historical and hypothetical accounts of his life.

Part 2 are blue and white porcelain works that were produced to be stored in the ark. They are made in three-dimensional forms to respond to the two-dimensional bird and flower paintings that Sim Sa-Jeong favored.

However, the fictional collector came up with his own formula in collecting these works as he overturned the genre and the official collection, regarded to have last recordings of them. In other words, they are reproduced and reenacted to be stored in this fictional ark, not simply residing in the actual museums or some other private collections.

1부와 2부 가상의 박물관과 가상인물의 컬렉션이 뒤섞인 이 복제품들의 이야기는 고정불변하며 불완전한 역사라는 기록과 인쇄물 속에서만 존재하던 2차원 데이터들을 3차원으로 복권시킨다.

가상의 방주에 실린 복제품들을 소유하는 이 인물은 실제 역사와 시대에 대한 궤변을 늘어놓거나 1부를 마무리하며 그림으로 된 제발을 쓰기도 하고, 팝송과 중국의 고대 역사인물들이 등장하는 시를 뒤섞은 제발을 쓰기 위해 다양한 박물관에 국유화되거나 개인소장으로 이미 소유화된 도자기나 회화를 물리적으로 호명하여 사유화한다.

1부는 18세기의 조선화가 심사정을 바라보는 실제 역사에 근거한 가설과 함께 같은 시대에 그와 연결된 실제 존재했던 복제된 그림들이 자리한다. 2부는 같은 방주에 실리기 위해 청화로 그려진 백자들로 심사정이 즐겨 다루던 2차원의 화조화에 3차원 형식으로 화답된다. 가상의 인물은 화조화풍의 장르가 담긴 이 청화백자들을 전복적 장르로 망상하고 수집한다. 이 수집품들은 방주에 실리기 전 공식적으로 기록되었던 박물관이나 소장처 등 실제의 장소들을 넘어 허구의 방주라는 공간에 모이기 위해 재연된다.

복제품 : 굴정(屈鼎, active ca. 1023-1056), '하산도(夏山圖)',

북송 11세기,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

Replica : Attributed to Qu Ding, 'Summer Mountains', Northern Song dynasty
11th century, housed in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Collection, New York

2012 | 45.4 x 115.3cm | Ink and pale color on silk, pigments

Installation view at 16bungee GALLERY HYUNDAI, Seoul, Korea





제발을 위한 목록 detail
List for Tiba
2012

Replica Ceramics, Wood

Paramount
2012

Ceramic, Gold Leaf 16x28.5cm



복제품: 백자 난초무늬 항아리
Replica: White porcelain jar
with orchid design in
underglaze cobalt-blue
2012

Ceramic, gold leaf, 24.5(h) cm



복제품: 청화백자 시명 전 접시
Replica: White porcelain fillet plate
with poetry in underglaze cobalt-blue
2012

Ceramic, diameter 21.5 cm



인공산
Artificial mountain
2012

Ceramic, 8.5(h) cm





낙관 luokuan
2012

Ceramic, gold leaf, wood
16.5x3.5(h)cm / 각 9.5x6(h)cm

예술을 위한 방주, 최해리의 컬렉션

백곤 (미학)

전시 프로젝트 「비가 내릴 것이다(It's gonna rain)」는 과거로 돌아가 현재인 미래, 혹은 가상의 미래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 미래는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닌, (현재와 과거의 담론들을 증명하기 위한) 가상, 혹은 허구적 시간이다. 그러나 그녀에게 있어 그 가상 혹은 허상은 진상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동시에 진상과 허상으로 구성된 예술의 한 방식으로 사용된다. 그녀의 프로젝트는 과거이자 현재, 미래의 의미들이 동시에 뒤섞여 있다. 이는 허구이면서 동시에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그녀의 이야기는 기억이라는 관념과 관계하며 예술과 작품에 관여한다. 그 기억의 흔적을 찾기 위해 그녀는 예술의 현미경을 들고 역사의 수많은 지층들을 분석해 나간다.

I. 고고학의 저장고, 박물관의 심사정

최해리는 거대한 역사의 지층 속에서 커다란 가상의 방주를 발견한다. 그 방주 안에는 수많은 유물과 예술작품들이 들어있다. 그 유물들과 예술작품들은 그녀를 떠나 고스란히 박물관으로 옮겨져 역사적 기록을 위해 박제된다. 최해리는 이 박제된 유물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다시 복제한다. 그 복제품들은 박물관의 그것과 동일하게 제작된다. 그녀는 역사적 유물의 얼룩과 흔적까지도 복제해 사람들에게 과거의 유물인 그것과 동일하게 인식하게 한다. 그 복제품에는 산수화, 어진, 초상화, 영모화, 화조화, 화훼초충화 등 조선시대 후기 동양화의 모든 형식들이 담겨 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현재 심사정(玄齋 沈師正, 1707~1769)의 모든 작품들이다.

심사정은 영의정을 지낸 명문 사대부의 자손으로 겸재 정선(1676~1759)의 문하에서도 그림을 배울 정도였으나, 역모 죄로 몰린 집안의 몰락

으로 당시 관직에 몸담지 못하고 그림만 그렸다. 그의 생애는 제대로 기록되어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 말은 당시 그가 크게 주목받지 못했음을 증명한다. 최해리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였다. 과연 심사정은 어떤 인물인가? 당시 가장 유명한 화가는 다름 아닌

정선이었다. 정선은 조선 회화사의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었으며, 당시 노론이 지배한 정치적 분위기에 힘입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반면 심사정은 소론 집안으로 정선의 진경산수화나 조영석의 풍속화풍을 따르지 않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다. 그러나심사정은 2인자 혹은 그림자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화풍을 끝까지 추구하여 남종문인화풍을 정립하였다. 역사는 1인자들을 위한 기념비적 산물이다. 그 기념비는 왜곡되고 과장되어 사실로 기록된다. 현재에 살고 있는 우리는 그 허구적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인다. 최해리의 방주는 가상의 방주이다. 그녀가 거기서 발견한 모든 유물들은 심사정의 것이나 복제된 레플리카(Replica)이다. 미술사에 나온 수많은 작품들을 실제 목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진품의 예술작품으로 인정하는가? 심사정은 바로 우리가 “예술”이라고 부르고 인식하는 개념의 근원을 위한 최해리의 레플리카인 것이다. 그녀는 심사정을 통해 예술의 개념과 박물관, 역사와 기록, 사실과 가상에 대해 말한다. 그렇기에 그녀의 방주는 허상이면서 실재하는 하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진다. 관객인 우리들은 고고학자처럼 그녀의 작품을 하나씩 분석하여 커다란 역사적(예술적) 구조를 가진 이야기와 마주하게 된다.

II.. 컬렉터의 선택, 휘증의 예술품

다시 방주로 돌아가보자. 방주에는 수많은 예술작품들이 있는데 심사정의 회화 작품과 도자기들이 잔뜩 들어 있다. 방주에 놓여있는 수많은 도자 작품들은 한 컬렉터의 수집품인데 이는 작가가 설정한 가상의 인물

이다. 작가는 이 가상인물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중국 송나라 휘종(徽宗, 1082-135)을 거론하였다. 그 가상의 인물이 휘종과 같은 광적인 컬렉터라는 것이다. 이 방주의 인물을 딱히 휘종이라고 말할 순 없지만 휘종이라 설정하고 이야기를 지속시켜보자.

송나라의 황제이자 예술후원자, 컬렉터인 휘종은 북송 제8대 황제로 문화와 예술의 육성과 보호에 열성적이었으며, 정치를 멀리하고 문학과 미술에 탐닉하여 북송을 멸망케 한 장본인이다. 그는 한림도화원을 통해 그림을 적극 장려하고 서화, 그림, 도자기와 같은 문물들을 수집하고 심지어 궁궐 안에 갖가지 진귀한 꽃과 돌, 새 등의 산수를 그대로 옮겨놓는 일에 몰두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국고를 물쓰듯하며 심지어 수석을 옮기는데 방해가 되는 담장까지 허물어버릴 정도로 예술품 수집광이었다. 이 컬렉터는 수많은 청화백자들을 수집하였다. 순백의 흙 표면에 코발트계의 청색 안료로 그려진 화조화풍의 이 청화백자는 분명 휘종의 마음을 뒤흔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잠깐 역사적 순서가 헷갈린다. 휘종은 12세기 사람인데, 청화백자는 14세기 초엽 경 생산되었고, 조선에는 14세기 말에 유입되었다. 또한 심사정은 18세기의 인물이다. 휘종은 어떻게 청화백자와 심사정의 그림을 손에 넣게 되었는가? 바로 최해리의 방주와 모든 이야기들이 허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상의 인물 혹은 휘종이 건조하였다는 이 거대한 방주와 그 안에 들어 있는 심사정의 작품들과 청화백자들은 모두 실재하는 작품들이다. 그녀는 역사의 실재하는 이야기를 자신의 허구적 맥락에 끌어들여와 역사 혹은, 예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묻는다. 휘종의 컬렉션에는 심지어 올해로 100주년을 맞이한 미국의 6대 영화사 중 하나인 파라마운트 픽처스(Paramount Pictures Corporation)의 로고 도자기도 포함되어 있다. 시대를 넘나드는 휘종의 실재하는 컬렉션과 그 컬렉션을 복제한 최해리의 컬렉션은 그러므로 허구의 산물이지만 동일한 의미로 수용된다. 바로 예술작품이라는 맥락을 통해 해석된다는 말이다. 박물관에 존재하는 심사정의 작품이나 휘종의 청화백자들은 모두 최해리를 통해서 예술

작품이 되었다. 그것은 과거시대, 혹은 역사적 흔적에 관념의 레플리카를 덧씌움으로 인해 이 시대의 예술이 된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이미지'가 내뿜고 있는 의미들로 가득 차 있다. 최해리는 예술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 즉 예술가와 예술작품, 미술관과 컬렉터, 진품과 복제품에 대한 이미지들을 펼쳐놓는다. 그것이 예술인지 아닌지, 진품인지 아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미지는 가상이어도 되고, 진상이어도 된다. 심사정과 휘종, 청화백자와 허구적 세계의 총체예술인 영화는 모두 하나의 질문을 내던진다. "무엇이 예술이고, 이 예술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라고 말이다.

III. 언제나 새롭게 흘러가는 방주

역사는 살아남은 자들의 기억들로 채워진다. 그러나 역사는 특정 사람들의 것만이 아닌, 앞서간 사람들과 뒤에 남겨진 사람들 모두에게 끊임없이 발화되는 도화선이다. 최해리는 심사정의 화조화를 통해서, 그리고 휘종과 청화백자를 통해서 역사의 사건들을 한자리에서 직접 대면하게 한다. 심사정의 화조화에는 도연명(陶淵明, 365-27)과 이태백(李太白, 701-62), 롤링 스톤스(The Rolling Stones)와 니나 시몬(Nina Simone)이 함께 쓴 서화문(제발 題跋)이 적혀 있다. 그녀에게 이 시대의 예술은 그림과 시, 음악 모두가 한데 어우러진 총체적인 기록물이며, 이러한 기록은 사실 증명을 벗어나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역사는 예술의 의미들로 채워지며, 구조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에 의해 언제나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다. <That's all folks>, "이제 그만, 다음에 보자" 바로 워너 브라더스사의 애니메이션 루니 툰(Looney Tunes)의 마지막 엔딩 장면에 나오는 문구이다. 최해리의 가상의 방주에 쌓여 있는 예술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다'이다. 이제 그녀의 예술에 대한 거대한 방주는 관객들의 사유 속으로 유유히 흘러간다.

Ark for Art, Collection of Choi Hae-ri

Paik Gon (Aesthetics)

The exhibition project, *It's gonna rain* aims to discuss the future in perspective of the present or the virtual future by traveling back in time. That future is not foreseeable, but it is rather fictional or fabricated, existing to verify the discourses of the past and the present. However, for Choi, this fiction or illusion is based on reality and concurrently utilized in the form of art, comprised of both actuality and figment. Her projects are mixed with meanings from the past, present and future. These are fictional and also based on facts. Her stories relate to the concept of memories and also to art and art works. To find the traces of such memories, she analyzes the various stratum of the history with a microscope of art.

1. The Storehouse of Archeology, Sim, Sa-jeong at the Museum

Choi finds a fictional ark within the layers of history. This ark is packed with various relics and art works, which will be staged and stored at a chimerical museum, leaving Choi's hands for the sake of recording history. For her virtual ark collection, Choi creates identical replicas of these works so they could be shown to the public and she even replicates the stains or traces of those works to make the viewers believe them as identical. Amongst the replicas, all types of oriental paintings from the late Joseon Dynasty, such as the landscape painting, king's portraiture, portraits, still paintings (flowers, insects, plants, etc.) are found.

Sim was a descendant of a former prime minister from noble class and was even taught by Gyeongjae Jeongseon (1676-1759). However, his family was expelled from the political circle with allegations of treason. When he was no longer allowed to pursue a governmental position, he spent his days indulged in painting. He was cited as the Sainsamjae (士人三宰: three noble people whose names end with Jae) along with Gyeongjae pursue a governmental position, he spent his days indulged in painting. He was cited as the Sainsamjae (士人三宰: three noble people whose names end with Jae) along with Gyeongjae Jeongseon

and Kwanajae Cho Young-seok (1686-1761), and became the progenitor of the Joseon painting style by establishing landscape painting, genre paintings and literati calligraphic drawings of the Namjong School. Here, Sain (士人) means Sadaebu (noble, gentry, learned) classes who led the constitution of the painting styles based on the 18th century Neo-Confucianism in Joseon Dynasty.

Even though Sim is greatly acclaimed today, we don't have a proper record of his life, which means he wasn't highly received during his lifetime. This attracted Choi's attention. Who was this person, Sim Sa-jeong? She studied and traced any and all the recordings of him, his whereabouts and his achievements. At that time, Jeongseon was the most prominent painter who had an inarguably unrivaled position during the Joseon Dynasty. He wielded strong influence with support from the political ambience at the time, which was dominated by the Noron circle. On the other hand, Sim was from the Soron family, a minority in politics. Besides this political dispute, Sim did not abide by the rampant art styles such as the landscape paintings nor did he follow Cho Young-seok's genre paintings. Hence, Sim was relatively undervalued. Nonetheless, Sim pursued his own style even though he was overshadowed by all the other painters and styles, creating the Nanzong literary painting style. Then, why did Choi emphasize Sim?

History is usually written for the winners and it is a monumental product for them. That monument is distorted and exaggerated but it is still recorded as the truth. All of us living in the present era embrace such fictional truth as reality. Choi's ark is fictional; all the relics that she discovered there either belong to Sim or cloned replicas. As the current era is the epoch of image reproductions, how can we prove that those replicas are not Sim's works? How could we acknowledge all the works in the history of art as originals when we have not seen and won't be able to see all those works in person? For Choi's replica collection, Sim is the origin of the concept that we entitle and perceive as 'art'.

Through Sim Sa-jeong, Choi talks about the concept of art and museum,

history and record, and truth and fiction. This is why her ark is fictional yet simultaneously regarded as a true incident. We, as viewers, encounter history with a magnificent historic and artistic structure by analyzing her works individually just like an archeologist.

2. The Collector's Choice, Hui-tsung's Collection

Let's go back to the ark. There are numerous art works inside the ark, filled with Sim's paintings and porcelain works. These porcelains are from one collector's collection, but this character is fictional, set up by Choi. To illustrate the personality and characteristics of this persona, Choi cited Hui-tsung, an actual figure from the Song Dynasty of China. This fictitious person is a fanatical collector like Hui-tsung, but we cannot strictly designate this person as him. For now, we can settle that the figure is Hui-tsung and continue the discussion.

As history records, Hui-tsung (1082-1135) was the 8th Emperor of the Northern Song Dynasty and an ardent patron and avid collector of art. He was a zealous supporter of cultivating culture and arts industry as he indulged in literature and art rather than politics, eventually leading his empire to its downturn and eventual destruction. He established Hanlim Dohwawon (painting school) to highly encourage painting and collected paintings, calligraphic works, porcelain, and etc. He was even absorbed in reenacting painterly landscapes that he brought rare stones, flowers, and birds into the palace. During this process, he spent his entire state treasury and even demolished a wall that became an obstacle in moving rare stones. Evidently, he was a frantic collector and he also possessed numerous blue and white porcelains. The blue and white porcelain with flowers and birds painted in cobalt blue pigment on a pure white surface would have greatly attracted Hui-tsung. Then, what catches our attention in Choi's collection is that the time line is slightly mixed up. Hui-tsung is from the 12th century and blue and white porcelain is a 14th century product imported to Joseon at the end of the 14th century. Also, Sim Is from the 18th century. Then, how did Hui-tsung get a hold of the blue and white porcelain and Sim Sa-jeong's paintings?

Precisely,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Choi's ark and the entire stories are fabricated. However, this ark, supposedly created by this fictive

person (who could be Hui-tsung) stores all replicas of the works that actually exist. Choi brought real history into her fictional context, asking what history or even art is. Amongst Hui-tsung's collection, we can even see porcelain with the Paramount Pictures logo, one of the six major American film productions, which just had its 100th anniversary. In other words, Hui-tsung's collection that crosses over time and Choi's replica of that purposeful collection is a fictitious product, yet they are regarded as identical in perspective of meaning and context, i.e. they could all be interpreted within the context of art. Sim Sa-jeong's works at the museum or Hui-tsung's blue and white porcelain collection became art through Choi's creation process. They have become art works of the current era overlaid with the concept of replica, whilst still maintaining the traces of the past.

The current era that we're living in is crowded with meanings resonated by 'images' and Choi unfolds all stories relevant to art, including artists and art works, museum and collector, originals and replicas. It doesn't matter whether they are art or not and original or fake. The image can be virtual or real. The whole artistic implementation of Sim Sa-jeong, Hui-tsung, blue and white porcelain and all these fictional entities are integrated into sum total of art like a film, and as a whole they pose a single question, "What is art, and how will we remember this art?"

3. Invariable Ark that Newly Flows

History continues as it has been in the past and as it will be in the future. History is filled with the memories of those who survived. However, history is not owned by specific people; it is like a fuse, constantly ignited by people who have walked before us and who remain with us. Through Sim's paintings of birds and flowers, Hui-tsung and blue and white porcelain, Choi enables us to face and encounter all the historical incidents in one place. In Sim's paintings, we can find a literary piece co-written by Do Yeon Myoung and Lee Tae-baek, Rolling Stones and Nina Simone. To Choi, the art from this era is a comprehensive recording; a combination of paintings, poetry and music, and such recording exists on their own, free from attestation.

Copyright@2013 Choi Hae-ri All rights reserved.